

한국융합인문학회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년 공동학술대회

## 우리말, 우리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 ▶ 일시 : 2018년 4월 27일 (금), 14:00~4월 28일 (토), 12:30
- ▶ 장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201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주관 : 한국융합인문학회



## 한국융합인문학회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 [세부일정]

- ▶ 일시 : 2018년 4월 27일 (금), 14:00~4월 28일 (토), 12:30
- ▶ 장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201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학술대회 첫째날 (2018.04.27, 14:00-17:00)

**주제 :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소인호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14:10-14:20	축사	• 정종진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
14:20-14:30	휴 식	
14:30-15:00	주제발표 1	▶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 의 문법화 연구 • 발표 : 송대현 (김천대) • 토론 : 윤정아 (중원대) • 사회 : 양윤모 (극동대)
15:00-15:10	휴 식	
15:10-15:40	주제발표 2	▶ 설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인식 • 발표 : 정장순 (고려대) • 토론 : 유요문 (상지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15:40-15:50	휴 식	
15:50-16:20	자유발표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재생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 충북 남부3군의 행복생활권사업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희경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연수 (극동대), 박보영 (극동대) •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 사회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16:20-16:30	휴 식	
16:3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종합토론 : 정종진 (청주대 국어문화원 원장) 양윤모 (한국융합인문학회 부회장) • 폐회선언 : 소인호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 학술대회 둘째날 (2018.04.28, 09:00-12:30)

**제1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09:00-10:00]**

- 진행 : 한국융합인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박보영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제2부 총회 [10:00-10:30]**

- 의장 : 회장 소인호
- 사회 : 총무이사 송시형
  
- 1. 성원보고\_ 총무이사 송시형
- 2. 제6차 총회 개회선언\_ 회장 소인호
- 3. 의장 인사말\_ 회장 소인호
- 4. 학회활동 보고\_ 총무이사 송시형
- 5. 안건 심의 및 의결\_ 회장 소인호 / 총무이사 송시형
  - 제1호 안건 : 2018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 제2호 안건 : 회칙 등 변경 승인
  - 제3호 안건 : 임원변경 보고 및 승인
  - 제4호 안건 : 기타
- 6. 기타 안건 토의\_ 회장 소인호
- 7. 폐회선언\_ 회장 소인호

**제3부 청주 지역문화 답사 [10:30-12:30]**

- 진행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관계자
  
- 1. 직지박물관 답사
- 2. 상당산성 답사

\* 답사 완료 후 중식

# [ 목 차 ]

한국융합인문학회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2018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

### □ 학술대회 첫째날 (2018.04.27, 14:00-17:00)

주제 :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 ■ 주제발표 1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문법화 연구 ..... 7

▶ 발표 : 송대헌 (김천대학교)

▶ 토론 : 윤정아 (중원대학교)

#### ■ 주제발표 2

설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인식 ..... 23

▶ 발표 : 정장순 (고려대학교 대학원)

▶ 토론 : 유요문 (상지대학교)

#### ■ 자유발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재생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 충북 남부3군의 행복생활권사업을 중심으로 ..... 45

▶ 발표 : 김희경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연수 (극동대학교),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 학술대회 둘째날 (2018.04.28, 09:00-12:30)

—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	61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	62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66

학술대회 첫째날

2018.04.27

---

주제발표

#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주제발표 01]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문법화 연구

· 송대헌(김천대학교)

[주제발표 02]

설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인식

· 정장순(고려대학교 대학원)





##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문법화 연구

송대현\*

###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여 ‘-면서’의 형성 과정을 문법화<sup>1)</sup>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연결어미 ‘-면서’는 ‘-고’, ‘-며’와 함께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 결과 두 연결어미는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1) 가.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보며 밥을 먹는다.
- 나. 철수는 노래를 부르면서/부르며 학교에 간다.
- 다. 이기지도 못하면서/못하며 약착같이 달려들었다.
- 르. 지영이는 나를 알면서/알며 이는 척을 안 했다.

(1가, 나)의 예문은 각각 ‘-면서’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며’로 바꾸어도 어색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다, 르) ‘-면서’로 연결되면 ‘동시’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 되지만 ‘-며’로 바꾸면 비문은 아니지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1다)의 경우 ‘이기지도 못하다’는 선행절의 사실과 ‘약착같이 달려들었다’는 후행절의 사실을 나열하며 (1르)도 ‘지영이는 나를 안다’는 사실과 ‘이는 척을 안 했다’는 사실이 ‘나열’의 의미로 달라진다.<sup>2)</sup>

\* 김천대학교 교양학과 조교수. songdh7419@naver.com

- 1) 문법화는 영어로 ‘grammaticalization’이라고도 하고, ‘grammaticization’이라고도 한다. 전자는 문법적 형태소의 역사적 변화를 강조하고, 후자는 공시적 관점에서 범주나 의미가 변화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grammaticalization’의 관점에서 ‘-니까’의 통사적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윤평현(1994)에서는 연결어미 ‘-며’는 두 명제 사태의 순서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연결어미

이와 같이 두 어미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은경(1995)에서는 ‘때’, ‘면서’에 대해 ‘동시, 병렬, 나열, 열거’ 등의 의미로 설명하며 구종남(1989)에서는 화용론적으로 ‘면서’는 ‘때’에 의해 상호 관련된 선행절과 후행절이 현실 상황의 맥락상 두 동작이나 상태, 속성이 겹치는 것으로 이해될 때에는 ‘동시’의 의미로 표현되며 화용론적으로 선행절에 후행절이 기대부정을 이룰 때는 ‘대립’의 의미로 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연결어미 ‘면서’는 동시나열의 연결어미 ‘때’와 비슷한 의미관계로 분석하고 ‘때’에 통사적으로 보조사 ‘서’가 결합되어 ‘동시성’이 강화되었음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세 국어부터 사용된 ‘며서’에서 단순히 ‘-’이 첨가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조건’, ‘상황’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면’에서 기인한다는 가정으로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과정을 문법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sup>3)</sup>

## II. 연결어미 ‘면서’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

### 1. 연결어미 ‘면서’의 의미기능

한국어 연결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키는 통사적 기능 이외에 상황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의미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연결어미 ‘면서’의 대표적 의미기능은 ‘동시’의 의미기능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2) 가.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나. 영화는 숙제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2)예문에서는 선행절의 행위와 후행절의 행위가 ‘면서’에 의해 연결됨으로써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 문장에서는 연결어미 ‘면서’가 ‘동시’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 ‘면서’가 ‘동시’의 의미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면서’가 선행절의 행위와 후행절의 행위 사이의 시간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결어미임을 의미한다. 즉, (2)의 예문에서는 ‘면서’가 앞뒤의 두 행위의 시간적인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면서’는 두 명제의 인식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명제의 배열에 대하여 화자가 관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말뭉치 자료와 사전류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동시’ 적인 시간 관계로 이어주는 기능만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결어미 ‘면서’ 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행위가 ‘면서’ 에 의해 연결된다.

(3) ㄱ. 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ㄴ. 모르면서 이는 책을 한다.

ㄷ. 자기는 놀면서 남만 시킨다.

(3)의 예문에서는 연결어미 ‘면서’ 로 연결되는 두 행위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문장에서 ‘면서’ 는 ‘대립’ 의 의미기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3)의 예문에서의 시간관계를 살펴보면 (2)의 예문과 같이 ‘동시’ 의 의미도 포함한다. 이는 이들 문장에서도 연결어미 ‘면서’ 에 있는 두 행위 사이의 ‘동시’ 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결어미 ‘면서’ 는 행위나 동작 등 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 외에 상태나 속성을 서술어로 갖는 문장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 관계를 가늠할 수 없다.

(4) ㄱ. 한국어는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이다.

ㄴ. 모든 경제주체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4)의 예문에서는 선행절의 사태와 후행절 사태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 의 시간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 문장에서의 연결어미 ‘면서’ 는 사태를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고영근(1975)에서는 이와 같이 ‘면서’ 에 있는 또 다른 의미기능으로 인식하고 이를 선행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으로 실현되며 이를 ‘면서’ 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에 대해 ‘진행’ 의 의미기능으로 분석하였다.<sup>4)</sup>

연결어미 ‘면서’ 는 선행행절 사이의 ‘동시’ 의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과 선행절 상황을 특정 양상으로 표현하는 ‘대립’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시’ 라는 의미 기능은 또한 선행 상황의 특정 단계를 표시하는 ‘진행’ 의 관점상 기능과 동일한

4) 고영근(1975)에서 설명하는 ‘진행’ 의 의미기능은 다음과 같다.

ㄱ) 영화는 방을 먹고서 텔레비전을 본다.

ㄴ) 영화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ㄱ) 예문에서는 선행절의 상황이 이미 완료된다는 의미가 표현되 반면에, 행위의 끝점을 포함하지 않고 선행 상황의 내부 단계만 나타내는 ‘면서’ 가 쓰인 ㄴ)에서는 선행절의 상황이 진행된다는 의미가 표현된다. 이러한 상황의 ‘완료’ 의 양상을 나타내는 기능은 일부 연결어미에 있는 또 다른 의미기능인 관점상 기능이다.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연결어미 ‘면서’의 통사적 특징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가장 두드러진 통사적 특징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사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 (5) ㄱ. 그는 항상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한다.  
 ㄴ. 그녀는 부드러우면서 의연하다.  
 ㄷ. 자연은 인간의 어머니이면서 삶의 고향이다.

연결어미 ‘면서’는 (5ㄱ)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쓰여 선·후행절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또한 (5ㄴ)처럼 형용사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동작을 아울러 나타내거나 (5ㄷ)처럼 ‘이다’의 어간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자격을 동시에 나타낸다.

‘면서’는 동시성과 함께 후행절 상황이 시작되는 기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 (6) ㄱ.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ㄴ.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늘기 시작했다.

(6)의 예문에서의 ‘면서’는 동시성과 함께 후행절의 상황이 시작되는 기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 보조사 ‘부터’가 결합될 수 있으며, 후행절의 서술어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만 가능하다는 문법적 특징이 있다.

이 밖에도 연결어미 ‘면서’는 후행절이 생략된 채로, 종결어미처럼 쓰여 편지 글이나 담화 등의 종결표현으로 쓰이거나 인용문의 종결어미인 ‘다, -자, -리’ 등과 결합하여 종결어미처럼 쓰인다.

- (7) ㄱ. 건강하고 잘 지내길 바라면서…  
 ㄴ. 다들 별일 없으시다면서?  
 ㄷ. 내일 출발하자면서?

(7ㄱ)은 ‘이만 줄입니다.’의 의미가 생략된 형태이고, (7ㄴ, ㄷ)은 인용한 것을 다시 받아 재

차 확인하거나 반문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 ‘면서’는 ‘동시’의 의미를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동시’에 라는 부사어를 삽입해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터’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진행’의 의미 기능도 갖고 있으며 보조가 ‘도’가 결합할 수 있는 ‘대립’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3. 연결어미 ‘면서’의 통사적 제약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의미기능을 크게 ‘동시’의 의미 기능과 ‘대립’의 의미 기능으로 분석하였다.<sup>5)</sup> 연결어미 ‘면서’의 통사적 제약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결합 여부, 서법 제약, 시제 결합 등의 제약이 나타난다.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

- (8) ㄱ. 철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다.  
 ㄱ' . \*철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민호는 걸어갔다.

(8)의 예문은 시간적으로 ‘동시’의 의미 기능을 갖는 ‘면서’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의 관련성으로 인해 사람이나 동물이 주어일 경우,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

- (9) ㄱ. 그는 체육을 전공하면서 잘 하지는 못한다.  
 ㄱ' . \*그는 체육을 전공하면서 영수는 잘 하지는 못한다.  
 ㄴ. 민호는 순희와 사귀면서 혜선에도 사귀다.  
 ㄴ' . \*민호는 순희와 사귀면서 철수는 혜선에도 사귀다.

(9)처럼 ‘대립’의 의미기능으로 쓰인 ‘면서’는 선행절의 행위나 사태에 대한 후행절의 행위나 사태의 결과가 화자의 기대와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후행절의 기술 대상이 동일할 때 올바른 표현이 된다. 따라서 연결어미 ‘면서’는 구문상 선행절과 후행절이 기술하는 대상이 동일할 때 성립할 수 있다.

서술어의 제약의 관점에서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같은

5) ‘진행’의 의미기능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서 시작되어 후행절의 사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라는 의미로 분류하였다.

종류의 서술어를 요구하지만 ‘대립’의 ‘면서’에서는 서술어의 제약이 없다.

- (10) ㄱ. 영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  
 ㄴ. 그녀는 예쁘면서 착하다.  
 ㄷ. 민호는 선생님이면서 대학원생이다.
- (11) ㄱ. 그는 체육을 전공하면서 약하다.  
 ㄴ. 어머니께서는 편찮으시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신다.  
 ㄷ. 그는 학생이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

(10)의 예문은 ‘동시’의 의미를 갖는 구문으로 (10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 동사로, (10ㄴ)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형용사로, (10ㄷ)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명사+이다’로 같은 종류의 서술어로 쓰여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갖는 (11ㄱ)은 동사와 형용사로, (11ㄴ)은 형용사와 동사로, (11ㄷ)은 ‘명사+이다’ 구문과 동사로 각각 서술어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결어미 ‘면서’는 의미기능에 따라 서법의 제약도 받는다.

- (12) ㄱ.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먹는다.  
 ㄴ.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먹니?  
 ㄷ.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먹자.  
 ㄹ.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먹어라.
- (13) ㄱ. 배가 고프면서 밥을 안 먹는다.  
 ㄴ. 배가 고프면서 밥을 안 먹니?  
 ㄷ. \*배가 고프면서 밥을 안 먹자.  
 ㄹ. \*배가 고프면서 밥을 안 먹어라.

(12)의 예문은 ‘동시’의 의미기능 나타내며 (13)은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연결어미 ‘면서’가 (12)처럼 ‘동시’의 의미기능을 가질 때에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 제약 없이 모두 쓸 수 있지만 (13)과 같이 ‘대립’의 의미기능에서는 청유문과 명령문에 제약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어미 ‘면서’는 시제 결합 면에서 ‘동시’의 의미기능과 ‘대립’의 의미기능의 차이가 나타난다.

- (14) 가. 철수는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를 한다.  
 나. \*철수는 노래를 들었으면서 청소를 한다.  
 다. \*철수는 노래를 들겠으면서 청소를 한다.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경우 (14) 예문처럼 ‘았-, -겠’ 등의 시제요소들이 결합될 수 없다. 하지만 ‘대립’의 의미기능으로 쓰일 때에는 (15) 예문같이 결합이 가능하다.

- (15) 가. 배가 고프면서 밥을 안 먹는다.  
 가’ . 배가 고팠으면서 밥을 안 먹는다.  
 나. 그 사람은 애인이 있으면서 딴 여자를 만났다.  
 나’ . 그 사람은 애인이 있었으면서 딴 여자를 만났다.  
 다. 아이는 치료를 받으면서 울지 않았다.(동시)  
 다’ . 아이는 치료를 받았으면서 울지 않았다.(대립)

(15)의 예문에서 보듯 ‘동시’의 의미기능으로 표현되면 시제 요소가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대립’의 의미기능으로 표현될 경우 시제 요소의 결합이 가능하다. 또한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15다)의 구문에 ‘왔/있’의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면 (15다’)의 구문과 같이 ‘대립’의 의미기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동시’의 의미기능을 할 때에는 시제 결합에 제약이 있지만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 ‘면서’가 ‘동시’의 의미기능과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동시’의 의미기능을 할 때에는 주어의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요소 결합 제약 등이 나타나고 ‘대립’의 의미기능을 할 때에는 서법상의 제약만 나타난다.

### III. 연결어미 ‘면서’의 문법화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에 관해 고영근(1975)에서는 ‘면서’를 ‘며’와 ‘-서’로 분석하면서 ‘-서’의 형태가 문장의 의미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에서 ‘-서’를 ‘잉여적 표현’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서태룡(1987)에서는 ‘면서’를 ‘며’는 동명사 어미 ‘-음’과 계사 ‘이’, 정동사어미 ‘-어’로 ‘-서’는 다시 ‘-니’과 보조동사 어간 ‘-시’,

어말어미 ‘어’로 분석하였다. 특히 ‘ㄴ’을 음운론적일 가능성과 후치시일 가능성으로 판단하였다. 백낙천(2001)에서는 ‘면서’는 접속어미 ‘며’에 동사구 구성의 ‘서’가 통합되어 [-음어 + -에]나 [시+어]가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접속어미로서 ‘면서’가 동사구 구성의 접속어미라는 것은 후행 요소인 ‘서’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을 ‘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면서’에서의 ‘ㄴ’을 형태소가 아닌 분절음적인 존재로, 단순한 음운론적인 삽입으로만 분석하였다. ‘면서’의 의미기능이 ‘동시’의 의미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의 의미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며’와 ‘서’와의 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갖는 원인을 ‘면’의 의미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연결어미 ‘며서’의 사용 양상

서태룡(1987)에서는 ‘면서’의 소급형으로 연결어미 ‘며’와 보조사 ‘서’에서 출발해서 ‘서’가 ‘서’로 발달했다고 밝히고 있다.<sup>6)</sup> 안주호(2006)에서는 ‘며서, 면서, 면서’의 출현 빈도에 관해 17세기까지는 ‘며서’가 가장 활발하게 쓰였으며, 18세기부터 ‘면서’가 쓰이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 이르러 ‘면서’의 형태가 사용됨을 밝히고 있다.

연결어미 ‘면서’의 소급형인 ‘며서’는 15세기부터 나타나며 17세기 자료까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16) ㄱ. 말호며 우숨 우스며서 주규를 行호니 썸긴 피 긴 깊거리에 ㄹ독호엿도다.

〈두시언해 1481, 초 6:39〉

ㄴ. 거즈말 호는 놉들홀 호야 호놀이며서 거죽 여러 적 브르지쥬디.

〈번역노걸대 1517, 하:54〉

ㄷ. 津이 븐드러 방의 드리고 방문 밧기 옷 밧디 아니호고 자며서 안부를 묻더라.

〈번역소학 1517, 9:75〉

ㄹ. 복병이 일시에 디오를 거도며서 증 터 플러와 슌나른 거름만 네여서

〈연병지남 1612, 27b〉

ㅁ. 대년이 죽거를 녹 년을 거상호고 저며서 절을 덕회여 늻도록 변티 아니호니라

6) 또한 ‘서’는 보조동사 어간 ‘시’와 어말어미 ‘어’가 통합한 ‘서’가 단모음화하여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 3:32b〉

(16)의 예문은 모두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고 사용된 ‘며서’이다. (16ㄱ)은 15세기 자료에서 이미 ‘며서’가 사용된 예이고 (16ㄴ, ㄷ)은 16세기의 예이며, (16ㄹ, ㄴ)은 17세기에 사용된 예문이다. 이처럼 ‘며서’로 연결된 문장은 선행절 동사가 동작동사이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를 단순하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 ‘며’에 비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며’는 선행절과 후행절에서의 행위가 단순히 병행되고 나열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며서’는 두 문장의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또한 ‘며서’는 ‘진행’의 의미기능으로 선행절의 행위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한다.

(17) ㄱ. 사람이 나며서 아늑니 아니면 ㅁ히 ㅁ디 아니티 흘 거시니

〈여훈언해 1532, 상:25〉

ㄴ. 正官이 본디 병든 사람이 읍더니 었디 혼디 오며서브티 쏘 병드러머글 췌도

〈첩해신어 1676, 1:27〉

ㄷ. 후에 말하는 거시 올켓다 흐야 량인이 무지를 써나가며서 글을 허 글으디 무지  
흐 인칭들아

〈천로역정 1895 하:153〉

(17)예문에서의 ‘며서’는 보조사 ‘부터’가 결합이 가능할 수 있는 ‘진행’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특히 ‘며서’가 나타나는 선행절의 서술어는 시점을 의미하는 ‘나다, 오다, 써나가다’ 등의 동사이다. 이처럼 시점을 나타내는 동사와 ‘며서’가 결합하여 단순한 ‘동시’의 의미기능만이 아닌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며서’가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 자료는 그 수가 현격하게 적다.<sup>7)</sup>

(18) ㄱ. 비 특길 아디 묻으며서 그 물 구부물 怨望호려 호미로다.

〈선종영가집 1464, 하:126b〉

ㄴ. 이제는 제곱 살며서 유무도 서르 반기디 아니흐니

〈순천김씨연간 1565〉

7) 안주호(2007)에서는 ‘며서’의 의미기능과 빈도수 분석에서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 ‘며서’의 빈도수를 3.45%로 분석하였으며 2개의 예문만을 밝히고 있다. 본고 또한 자료를 검토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예문과 같음을 밝힌다.

(18)의 예문의 ‘면서’는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또한 이 ‘면서’에서는 보조사 ‘부터’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지만 보조사 ‘도’가 결합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면서’의 소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면서’는 ‘동시’의 의미기능을 가지면서 ‘진행’의 의미기능은 갖고 있지만 ‘대립’의 의미기능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현대국어 연결어미 ‘면서’와의 차이이다.

## 2. 연결어미 ‘면서’의 사용 양상

연결어미 ‘면서’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서’ 또한 대부분이 ‘동시’의 의미기능으로 표현되었다.

(19) ㄱ. 거룻말호는 놈들로 호여 노리 호면서 거룻 여러 소리로 부르되

〈중간노걸대언해 1795, 하:51〉

ㄴ. 믿음의 상쾌호여 풀 갓낀 뒤집지고 덕청의 간니면서 출항아 너 그 제스 스연 드  
런는다

〈남원고사 18XX(미정) 3:28a〉

ㄷ. 지금도 서너산 디경에서 살면서 저희 즈손이 다 좋노릇 호느니 엇지

〈천로역정 1894, 상:19b〉

ㄹ. 둘이 가면서 맛난 일을 말호야 슈작홀 새에 예수 | 갓가히 와서

〈훈아진언 1893, 38〉

ㅁ. 입아에서 비지쌌을 썩썩 썩러터리면서 쉬지도 아니호고 다라는다

〈치약산 1908, 상:126〉

(19)의 예문과 같이 ‘면서’는 ‘면서’와 같이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문장이 다수를 이루며 ‘진행’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면서’와는 다르게 ‘대립’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된 유형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20) ㄱ. 황년과 감초 달힌 물로 아히 곳 나면서 적적 머겨 빛소귀 더러운 것 머근 쏹을  
누이느니

〈두창경험방 1711, 01b〉

ㄴ. 두역이 만히 도드면 열이 성호야 눈의 드리 해되기 식오니 두역 도드면서 즉시  
서전즈를 그르 문드르 전화슈의 그라 즐게 썩긋티 호야 쉬쌍그 붓터 그르거든  
그라 붓티기를 년호야

〈두창경험방 1711, 23a〉

ㄷ. 남군과 어른도 업는 말을 호면서 도로혀 춤리치라호고

〈천로역정 1894, 하:112a〉

ㄹ. 악호 일호난 거슬 도모지 썩닷지 못하면서 엇지 고통을 밋는다호느나

〈천로역정 1894, 하:183b〉

ㅁ. 너희가 텃기는 엇더호지 분별호면서 새의 징조는 분별치 못하는도다

〈신약전서 1900, 마16:04〉

(20ㄱ, ㄴ)은 ‘진행’의 의미기능을 갖는 예문이고, (20ㄷ~ㅁ)은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 예문이다. 이처럼 ‘며서’와 ‘면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면서’에 이르러서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는 형태의 빈도가 늘기 시작했으며, 형태적으로는 ‘도리어, 엇지’ 등의 부사가 개입이 되며, 보조사 ‘도’와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 3.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

지금까지 연결어미 ‘며서’와 ‘면서’의 사용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며서’가 ‘면서’의 의미기능을 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며서’는 ‘동시’의 의미기능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립’의 의미기능의 사용 빈도는 극히 드문데 비해 ‘면서’는 ‘동시’의 의미기능과 ‘진행’의 의미기능도 나타내며 ‘대립’의 의미기능이 ‘며서’보다 많아졌다.

따라서 ‘면서’가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즉, 시간성을 나타내던 것이 ‘대립’의 의미로 문법화되어가는 의미·화용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8)</sup> 예를 들면 영어 ‘while’은 동시를 나타내는 시간적 접속사이지만 화용적인 기능으로

8) Traugott, Elizabeth & Konig, Ekehard, (1991)에서는 의미·화용적 변화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외부적인 상황을 기본으로 하던 것 → 화자의 내부적 상황(평가/인지/지각)

2) 외부적, 내부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 → 텍스트적인 상황에 기본을 둔 의미

3) 화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상태, 또는 상황에 대한 태도 등을 묘사함

이와 같은 경향으로 ‘while’은 고대영어에서 대격 한정사 대격 명사, 일종의 보문소인 ‘pe’으로 구성된 동시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wile는 pa hwile pe에서 축

추론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은 ‘although’ 와 같은 ‘양보, 대립’ 의 의미기능으로 확대된다. ‘양보, 대립’ 의 의미기능은 화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상태, 또는 태도 등을 묘사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문법화가 진행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sup>9)</sup>

(21) ㄱ. 그녀는 운동선수이면서 피아니스트이다.

ㄴ. 그녀는 운동선수이면서 이번 음악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21ㄱ)의 예문은 단순히 직업이 두 역할을 겸업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동시’ 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21ㄴ)의 예문에서는 화용론적 배경에 의해 다른 의미기능을 갖는다. (21ㄴ)의 선행절은 동일한 ‘그녀는 운동선수이다’ 라는 내용이라도 후행절이 어떠한에 따라 ‘대립’ 의 의미기능으로 해석이 된다. 즉, 선행절인 ‘그녀는 운동선수이다’ 라는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그녀가 운동선수이면 운동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선수이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악회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로 후행절의 사건을 ‘대립’ 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문법화의 기제인 주관적 신념이나 태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ㄱ. 철수는 밥을 먹었으면서 또 먹는다.

ㄴ. 철수는 결혼을 했으면서 첫사랑 친구를 만났다.

(22)의 예문이 ‘대립’ 의 의미기능을 가지려면 전제되는 ‘조건’ 이 있어야 한다. (22ㄱ)에서는 ‘철수는 밥을 먹었다’ 는 선행절이 오면 전제되는 조건은 ‘밥을 먹었으면 먹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하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또 먹는다.’ 라는 문장으로 쓰여 ‘대립’ 의 의미기능을 갖는 것이다. 또한 (22ㄴ)은 ‘철수는 결혼했다’ 라는 선행절의 기대되는 조건은 도덕 관념상으로 ‘결혼을 했으면 다른 이성 친구는 만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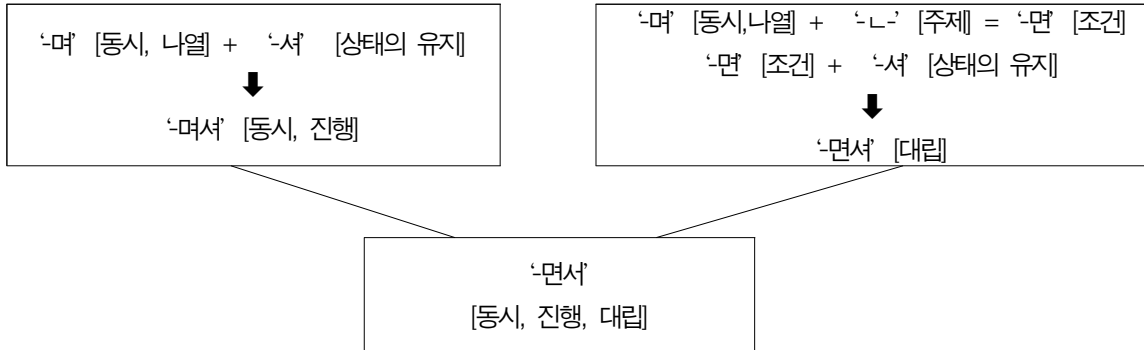
이처럼 ‘면서’ 는 ‘-면’ 이 갖는 ‘조건’ 의 의미기능을 바탕으로 그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서<sup>10)</sup>’ 와 결합함으로써 ‘대립’ 의 의미기능이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면서’ 의 의미 기능은 ‘-며’ 의 ‘동시’ 의 의미기능에서 출발하여 ‘-서’ 의 ‘유지’ 기능이

약이 된 단순한 접속사였는데 형성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동시적 기점을 뜻하던 한정사가 소실되고, 다른 부분으로 추론될 수 있게 되었다. 상황 배경의 추론은 14세기 후반부터 몇몇 예에서 나타나며, 17세기에 ‘대립’ 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9) 구현정(1999)에서는 ‘조건’ 을 나타내는 ‘-면’ 을 ‘-며’ 와 ‘-는’ 의 결합으로 분석하여 동시성 연결과 주제 표지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면’ 의 사용 빈도수가 현대국어로 진행될수록 높아졌으며, ‘-면’ 의 의미는 일반화되어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서’ > ‘-서’

덧붙여 ‘며서’가 이루어진다. 그로인해, ‘동시’의 의미기능에 ‘진행’의 의미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며’에 주제 표지인 ‘-ㄴ’이 결합되어 ‘조건’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면’의 영향으로 선행절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하고 후행절의 행위에 대한 언급하는 ‘면서’가 파생되는데 이것이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IV. 결론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에 관해 문법화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대립’의 의미기능을 하는 문법 형태소는 시간적 속성을 갖는 형태에서 출발하여 화자의 주관적 심리나 태도로 문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과정은 ‘며’의 ‘동시’의 의미기능에서 출발하여 ‘서’의 ‘상태 유지’의 의미가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대립’의 의미기능은 빈도수 면에서 아주 적게 나타나며 ‘면서’로 쓰이면서 ‘대립’의 의미기능이 나타난다.

‘며서’가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보조사 ‘부터’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면서’에서는 보조사 ‘도’가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형성은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며’에 유지를 나타내는 ‘서’가 결합되어 ‘며서’가 되며, 이것은 ‘진행’의 의미기능이 첨가된 것이다. 여기에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며’에 주제 표지를 나타내는 ‘-ㄴ’이 결합되어 ‘조건’의 의미기능을 갖는 ‘면’의 영향으로 선행절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후행절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면서’는 ‘대립’의 의미기능을 갖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 참고문헌

- 고영근. 1975. “현대 국어의 어말 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 *응용언어학*, 7(1), 73-99.
- 구종남. 1989. “대립관계의 ‘면서’ 구문에 대하여” , *국어문학*, 27, 371-341.
- 박재연. 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 의 의미 기술을 위하여” , *한국어의미학*, 22, 73-94.
- 박진호. 2007.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 의 비대칭적 용법” , *한국언어문화*, 38, 173-187.
- 박호관. 2015. “연결어미 ‘-(으)면서’ 구문의 사상과 의미망” , *우리말글*, 67, 1-27.
- 백낙천. 2001. “동사구 구성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 *한국어학*, 13, 151-170.
- 서태룡. 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주호. 2006. “현대국어 연결어미 ‘면서’ 에 관한 고찰” , *현대문법연구*, 45, 181-200.
- 윤평현. 1994. “국어의 나열관계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 *한국언어문학*, 33, 1-25.
- 윤평현. 2005.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은경. 1995.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아남. 2011. “ ‘면서’ 구문 연구 : 관점상 기능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raugott, Elizabeth and Konig, Ekehard. 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Elizabeth Traugott and Bernd Heine (ed.),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I*. John Benjamins Publishig Company.

[토론문]

##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문법화 연구」에 대한 토론

윤정아

(중원대학교 강사)

이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중 ‘고’와 함께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며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면서’의 문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어에서 활용되는 연결어미 ‘면서’는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 주로 ‘-며’ + ‘-서’의 과정에 의미적으로 ‘동시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면서’에 대해 문법화 관점에서 원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어미의 형성 원리에 관한 연구는 의미 기능의 확장에서 기인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향후 한국어 교육의 어미 교육에 활용했을 때 교육 효과가 높을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방향에서 발표문을 읽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한다.

첫째, 연구의 서론에서 문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가 덧붙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연구에서 ‘면서’의 형성 방향의 토대가 되는 ‘문법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원리를 밝히면 좀 더 논의가 구성적인 측면에서 탄탄해 질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면서’의 의미기능을 크게 ‘동시’의 의미와 ‘대립’의 의미로 분석하였다. 특히 시간적 의미를 갖는 표현이 양보와 대립의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관점에서 ‘면서’에서 ‘대립’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지 그 사례를 좀 더 여쭙보고 싶다.

셋째,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자료는 말뭉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면 의미의 이동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으)면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이 ‘동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밝힌 문법화 관점에서의 의미기능 변화를 한국어교육에 접목시킬 방안이 있는지 혹은 향후 연구 방향에서 보충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등이 궁금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연구자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토론을 마친다.



## 설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인식

정장순\*

### I. 서론

초자연적인 대상이나 자연 자체에 대한 숭배 의식 혹은 의례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숭배의 대상은 점차 신(神, God)이라 불리며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했다. 신에 대한 정의는 각 종교와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며 정성을 다해야 할 존재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성적 사고관이 널리 퍼지게 되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중시되면서 다소 감성적이며 비과학적인 종교에 대한 믿음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예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등장할 정도로 종교에 관한 의식들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간소화되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다.

동양의 경우 오랜 기간 유교에서 비롯된 ‘제사’를 지내 왔지만, 서구문물을 습득하고 새로운 문명국가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서 ‘제사’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되었고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조차 ‘문화대혁명’ 이후 제사를 간소화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 본디 ‘제사’는 일반적으로 조상에 대한 예를 보이는 것으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례로 그 규범과 절차를 『주자가례』로 정리하여 보급 될 정도로 유교문화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 의례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시대가 바뀌어 ‘제사’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그 의미는 퇴색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는 데에 있어 『주자가례』 혹은 『사례규범』에 적힌 제사절차들을 따르려고 하고, 매 명절이 되면 ‘홍동백서’나 ‘어동육서’와 같은 제사상차림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또한 각 집안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제사 의례를 따르려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홍동백서’나 ‘어동육서’ 등에 대한 제사상차림에 대한 역사적 연원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문학 박사수료. hati88@naver.com

은 불분명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제사 관련 설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제사의례를 과격적으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효에 관련된 이야기로 인식된다. 본고는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제사 관련 설화 예의나 규범을 무시한 제사를 지내고도 ‘효’로 파악이 되는 설화를 살피고 서사에 깔린 사람들의 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 II. 진실과 만들어진 전통

유교는 사람이 ‘仁’을 발현하기 위해서 ‘禮’를 강조했다. 따라서 유교를 ‘禮教’와 동격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제사’이다. 제사에 대해 『예기』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는 ‘예’보다 급한 것이 없으며, ‘예’에는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sup>1)</sup>라 하여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사는 1. 제사를 드리는 대상의 차이. 2. 제사를 하는 장소. 3. 제사를 지내는 시기 에 따라 의례나 절차가 바뀌기는 하지만, 제물을 바쳐 신과 교감을 한다는 목적은 변함이 없다.<sup>2)</sup> 여기서 유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지각능력이 있는 ‘神靈’ 혹은 ‘神明’으로 ‘天’과 천체, 기상을 주재하는 ‘천신’, 자연적 사물을 주재하는 ‘지시(地示)’, 사람이 죽어서 나타난 ‘인귀(人鬼)’로 이들은 모두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sup>3)</sup> ‘천신’과 ‘지시’에게 지내는 제사는 ‘郊’ 제사로 부르며 국가적 의례로 진행이 되었고, ‘인귀’에 대한 제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사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주자가례』에 실려 있는 ‘제사’의 방식을 수용하여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16c에 유교 이념과 관습이 일반화 되고 17c에는 『가례집람』, 『가례언해』와 같은 책이 보급되어 일반 가문에서도 ‘가례’로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sup>4)</sup> 조선 후기에는 『사례편람』을 통해 다시 재정리가 되어 민간에 보급이 되었다. 『주자가례』에서 말하는 제례는 신에게 올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茶禮’로 ‘茶’를 올리는 간단한 의식이다. 기제사<sup>5)</sup>의 경우 차 이외에 다른 음식 상차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에게 올리는 음식 상차림을 기본으로 제사를 치른다.<sup>6)</sup> 또한 『주자가례』의 제사에서 사용하는 음식들은 빈객들에게

1) 『禮記』, ‘祭統’, “凡治人之道, 莫急於禮, 禮有五經, 莫重於祭”; 금장태, 『귀신과 제사』, 제이앤씨, 2013, 59쪽.

2) 금장태, 위의 책, 2013, 59-61쪽.

3) 『周禮』, ‘春官·大宗伯’, “大宗伯之職,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금장태, 위의 책, 2013, 60쪽.

4) 윤덕인, 「祭祀飲食과 상차림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논문집』 22, 관동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소, 1994, 4쪽.

5) 죽은 사람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

대접하기도 하는 등 연회적(宴會的)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제사상은 일반적인 상차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sup>7)</sup>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에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봉제사 접빈객'을 위해 제사와 접객을 위한 조리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조리서에도 제사와 빈객 접대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수와 만두에 대한 조리법과 술을 빚는 법이 다수 실려 있다.<sup>8)</sup>

제사를 치를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1. 준비과정 2. 본 과정 3. 마침과정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사의 과정	
1. 준비과정	
① 재계	
② 진설 - 설위 - 진기	
2. 본과정	
① 영신 - 참신 · 분향	
② 진찬 - 헌폐	
③ 헌작 - 삼헌 · 독축	
④ 흠향 - 유식 · 합문	
⑤ 강복 - 계문 · 하사	
⑥ 음복 - 수조	
⑦ 송신 - 사신	
3. 마침과정	
① 납주 · 철조	
② 망료 · 예매	
③ 분준	

위 과정을 통해 보면 제사는 '신'을 모셔오고 제물을 공양한 뒤 복을 받은 다음 신을 돌려 보내는 행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도 1. 준비과정에서 신을 모셔오기 위해 제관이 행하는 '재계' 행위는 축소되었지만 이 과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흠향의 단계에서 '尸童'이 존재하여 제사를 받는 신의 대리자로 음식을 먹었다.<sup>9)</sup> 한국에서는 '사동'

6) 윤덕인, 위의 논문, 1994, 4-5쪽.

7) 김상보, 「한국의 제사음식 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6, 272쪽.

8) 이난수, 「장계향(張桂香)의 음식디미방과 유교여성 살림의 철학」, 『한국의 철학』 5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151-152쪽.

9) 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변화와 '제사설화'의 미래」, 『어문논총』 5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이 존재하지는 않고 ‘插匙正筋’의 행위를 통해 음식을 먹는 행위를 재현한다. 더불어 각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도 일부 의례가 생략되거나 추가되기도 한다.<sup>10)</sup>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문화가 결합되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 와서 명절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홍동백서’, ‘홍동백서’와 같은 규칙을 소개하며, 제사상차림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른 시기에 이와 같은 규범을 소개한 기사에서는 이들이 『사례편람』에 있다고 주장한다.<sup>11)</sup> 혹은 율곡의 『격몽요결』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례편람』의 제사상차림의 규칙을 보면, 현재의 모습과 다른 것을 살필 수 있다.

果	果	果	果	果
食醢	醢	沈菜	醬	蔬
餅	魚	炙	肉	麵
羹	醋醪	匙筵	蓋盤	飯

그림1 『四禮便覽』의 제사상차림

\*〈그림 3〉은 윤덕인(1994), “祭祀飲食과 상차림에 관한 연구”, 6쪽에서 재인용

위의 그림은 『사례편람』에 실린 19세기 제사 진설 방법이다. 아래에서부터 1열로 총 4열의 상차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열은 왼쪽부터 갱(냉수), 초집(식초), 수저, 술잔, 메(밥) 2열은 떡, 생선, 고기 꼬치, 고기, 국수 3열은 식혜, 생선 젓갈,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 김치, 간장, 나물, 포 4열에는 과실을 올려놓는다. 여기서 생선과 고기의 자리에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생선과 동물의 고기를 올려둘 수 있고, 김치의 경우 혼령들이 싫어하는 고춧가루를 제외한 물김치 혹은 나박김치를 사용한다.<sup>12)</sup> 제사상차림을 살펴보면 손님을 접대하거나 잔치에 사용되는 음식이 추가되었지만 일반적인 상차림 구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상차림을 토대로 현대의 매체에서 소개하는 상차림과 비교해보면 ‘조율이시’나 ‘홍동백서’의 기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또한 『격몽요결』에서도 해당 조항들을 찾아볼 수 없고, ‘어동

70쪽.

10) 윤덕인, 앞에 논문, 2쪽.

11) 동아일보, 「되살아난 옛정취 舊正(구정)」, 1985.02.18 기사(뉴스)

12) 윤덕인, 앞에 논문, 301쪽.

육서'의 경우 『송자대전』에서 '일부 기문이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이 바다라 생선을, 서쪽이 육지라 고기를 놓았다.' 라는 송시열의 언급<sup>13)</sup>과 『여헌집』에 이와 비슷한 문답이 실려 있고, 이와 같은 풍습이 고례(古禮)에는 맞지 않는다고 적혀있다.<sup>14)</sup> 오히려 1960~70년대의 신문기사에서 갑자기 '홍동백서' 등의 규칙들이 소개되면서, 민간에 알려지고 이것이 규범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거 제사상을 보면 철저한 원리원칙에 의한 진설보다, 실제 영혼이 식사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편람』 기준으로 영혼이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1열에는 수저와 밥과 국을 놔서 주식을 놓았다.

2열에는 술과 밥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고기류를 놓고, 3열에는 부식을, 4열에는 밥을 먹고 난 뒤 먹을 수 있는 후식을 놓았다. 이는 제사상이 의례를 위한 상차림이지만 사람이 주식과 반찬, 후식을 먹는 순으로 재현되어 일상적인 상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제사에서 진설을 할 때에도 오래 두거나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 음식부터 상에 놓기 시작해서,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있는 음식을 가장 나중에 놓는 등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을 차리듯 놓는다.<sup>15)</sup> 게다가 식초와 간장의 위치는 각각 양념을 짚어서 먹을 음식을 근처에 놓기도 하고, 떡 옆에는 조청이나 꿀을 놓기도 하는 등 밥을 먹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배려를 하여 진설을 한다.

또한 제사 과정에서 '삽시정저(挿匙正箸)'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숟가락을 꽂고 제물들에 젓가락을 옮기며 놓거나 흡사 사람이 집는 듯 젓가락을 벌려 움직임을 재현한다. 더불어 일부 지방에서는 초헌·아헌·종헌의 과정에서 술을 바칠 때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안주거리를 같이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sup>16)</sup> 유식이 끝난 뒤에 본디 차를 바쳐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충농'이나 '냉수'를 바쳐 반주 - 식사 - 후식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식사과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사상을 진설하면서 밥과 탕의 위치를 반대로 놓아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반대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나타내며, 일상적인 상차림과 비일상적인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칙과 절차를 보면 오히려 현재의 규범들은 제사의 목적에서 벗어난 과잉된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구비문화대계』에 기록된 제사 관련 설화들을 살펴보면 『주자가례』의 규범에는 어긋나지만, 상을 차려 조상을 대접한다는 '제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13) 洪鎬問祭禮魚東肉西之義。旅軒答曰東南多水魚所宅。西北多山禽獸所居故耶云。此說如何。『宋子大全』卷 114, 答洪聖休.

14) 禮有魚東肉西之文。蓋東南多水魚所宅也。西北多山禽獸所居故耶。此所謂東西。皆以神位分也。『旅軒集』卷 5, '答洪參判'.

15) 김미영,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516-518쪽.

16) 김미영, 위의 논문, 2008.

644. ‘제사 지내고 혼령의 존재 인정하기’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복잡한 형식과 절차보다, 실제 조상이 원하는 것으로 제사지내는 이야기들이다.<sup>17)</sup>

### Ⅲ. 제사설화에 담긴 가치관

644에 속하는 제사설화는 제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엇보인다. 특히 제사를 통해 흠향 하러 오는 혼령의 존재들의 실체를 긍정하고, 제사는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대접을 해야한다는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이중 혼령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644-1<sup>18)</sup>, 644-2<sup>19)</sup>, 644-3<sup>20)</sup>, 644-4<sup>21)</sup>, 644-5<sup>22)</sup>들로 이들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분류의 기본적인 이야기로 추정되는 이야기들의 서사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644-1 제삿날이면 오는 혼령

##### 644-1-1 운감<sup>23)</sup>을 하지 못하는 혼령

1. 한 사람이 장을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노인과 동행하게 되었다.

- 
- 17) 위 분류번호는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의 분류번호를 따른 것으로 이하 각주에 달린 설화의 제목은 집-책 ‘제목’으로 달아둔 것이다. 또한 해당 유형의 모든 각편을 다루기엔 원고의 한계가 있어 서사단락과 유사한 대표 각편을 예로 들었다.
- 18) 2-2 염라대왕이 된 김치, 2-8 닭이 두 번 운 후에 제사지내는 오죽헌 권씨네, 3-4 길이 멀어서 제사 못 먹는 혼령, 5-1 저승차사를 보고 첩을 얻어준 부인, 5-4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5-4 제사음식의 머리카락, 5-5 魂人 6-10, 귀신의 부탁, 7-14 태고정 유래, 7-14 낙번 서원, 7-15 종가 제사와 귀신의 운감, 7-16 신작(神作)으로 급제하고 철상을 말려준 선비, 8-9 부인혼령과 제사, 9-3 제사상 받으러 가는 영혼 만난 이야기.
- 19) 2-9 붓장수와 제사, 3-1 이산해 이야기, 3-1 거지 적선하여 득남, 3-4 과객 제사음식 해주고 아들 둔 이야기, 7-5 제사상 차려주고 받은 복, 7-5 걸객에게 차려준 제사밥, 7-9 죽은 사람 구제하고 받은 보은, 7-11 과객 제사 차려준 만머느리, 7-11 과객 제사 차려주고 사가 낳은 모친, 7-15 걸객 제사 지내주고 낳은 강감찬, 8-4 과객 제사 지내주고 덕본 머느리, 8-6 사계 김선성, 9-2 자운당, 9-2 양돈어네 조상.
- 20) 1-9 혼령들의 제사 음식 품평, 3-4 무덤에서 자다 귀신이야기 들은 소금장수, 4-2 혼령의 대화를 엿들은 소금장수, 4-4 소금장수 이야기, 4-4 제사 잘못 지내서 손자가 화로에 빠지다, 4-5 혼령의 대화 엿들은 소금장수, 4-5 소금장수 이야기, 4-6 묘에서 잔 소금장수, 5-1 머리카락이 든 제사밥, 7-13 등금장수와 쌍금피, 7-17 제삿날 귀신들의 말을 엿들은 과객, 8-8 귀신과 제사법, 8-9 조상 섬기는 일, 8-11 제삿밥 받아먹으러 오는 간송선생 영혼, 8-13 저승에서 먹는 제사 음식, 9-2 제사는 정성껏 해야, 9-2 메밥의 머리털은 뱀, 9-3 여우 잡은 이좌수, 9-3 이좌수와 현형방
- 21) 3-4 귀신을 보는 소금장수, 6-3 제삿밥을 받아먹는 조상, 6-5 제사상에 차릴 음식, 6-12 제삿날 혼신 모신 친구, 7-5 웅덩이에 빠진 혼.
- 22) 2-9 효성이 지극한 동생, 3-2 제사 잘 지내고 태어난 월사, 3-3 아버지 꿈꾸고 형을 도운 동생, 6-9 아무래도 큰 아들, 7-16 아들 도운 혼신.
- 23) ‘殞感’은 혼령이 제사상의 음식을 맛보는 것을 의미한다.

- ㄴ. 한참 같이 가던 노인이 닭이 울자 운감하기는 글렀다며 그 사람에게 자기 집에 말해 제사를 늦게 지내 줄 것을 부탁한다. (혹은 자신이 왔다 갔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한다.)
- ㄷ. 부탁을 받은 사람은 제사를 지낸 집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집안에서는 제사를 늦게 지내게 되었다. (혹은 닭이 두 번 운 후에 제사를 지냈다/ 닭이 울어도 철상을 하지 않았다.)

#### 644-1-2 제삿날에 나타나는 혼령

제삿날에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어 나타나는 혼령들의 이야기. (사람이 직접 목격 혹은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644-2 남의 제사 대신 지내주고 잘되기

- ㄱ. 어느 집에 한 과객이 묵게 되었는데 밥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다.
- ㄴ. 주인이 연유를 묻자 제사를 지내야 한단 소리에 감격하여 제사상을 차려주기로 했다.
- ㄷ. 둘째와 셋째 며느리는 제사상 차리기를 거부하고 맏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 주었다.
- ㄹ. 이에 맏며느리는 복을 받고 자손들은 크게 성공했다.

#### 644-3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쳐준 혼령

- ㄱ. 한 소금장수가 묘소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가 혼령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는다.
- ㄴ. 잠시 뒤 돌아온 혼령이 제사가 부정하여(음식에 이물질/지손들의 다툼) 운감을 하지 못해 횡감에 손자를 화상 입히고 왔다고 한다.
- ㄷ. 날이 밝고 소금장수는 제사를 지낸 집에 찾아가 화상을 치료할 방도를 알려주고 제사를 다시 지내게 한다.

#### 644-4 다른 사람에게도 제삿밥을 먹게 해준 혼령

- ㄱ.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혹은 무덤가에서 자게 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
- ㄴ. 그 영혼은 제삿밥을 먹으러 갈 테니 따라오라고 하여 같이 제삿밥을 먹는다.
- ㄷ. 상주가 갑자기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왔냐고 묻고 자초지종을 들은 뒤, 제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지내게 되었다.

#### 644-5 제사 정성껏 지낸 자손 도와준 혼령

- ㄱ. 가난한 형과 부자 동생이 살았는데, 제사를 지낼 때면 항상 동생이 이바지를 하여 제사를 지냈다.

- 나. 하루는 강물이 불어 동생 집에 가지 못하고 (혹은 동생 집에서 제수의 편찬을 듣고 화가 나 돌아와) 간소한 음식 (죽이나 묵)을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 다. 제사를 받은 아버지가 친구의 꿈에 나타나 차린 건 없지만 장자의 집에서 먹고 가서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함.
- 르. 친구는 이 이야기를 형에게 전달하고 비록 죽을 차리더라도 제사를 꼭 장자의 집에서 챙기게 됨.

644번의 이야기에서는 영혼들이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기』와 『주자가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있어 ‘흠향하는 존재’에 대해 조상과 후손의 ‘기’의 감응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과 달리 묘소에서부터 실체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집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들의 생김새는 생전의 모습과 동일하며 644-1-1 번의 이야기에서는 운감하지 못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증거로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실체를 가진 조상의 등장은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근거로써 활용이 되며, 서사 속에서도 제 3자에 의한 영혼의 존재 확인을 통해 제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지냈다는 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자손들이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은 유교에서 제사의 목적으로 삼는 ‘신’에 의한 ‘降福’보다 어버이에게 생전처럼 상을 차려 대접을 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644-2와 644-5를 제외한 이야기에서는 조상의 감응보다, 자손들이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644-2 이야기의 경우도 다른 사람지만 정성껏 제사를 지내서 이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인상이 더욱 강하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조상을 모시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는 용인되기 힘들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사를 지낼 여력이 없는 과객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챙겨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사에서 말하는 조상과 자손의 ‘감응’으로 인한 ‘발복’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 정성을 통해 ‘발복’을 불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사를 받은 주체도 자신의 자손보다, 제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준 며느리에게 복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44-5의 이야기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주체는 ‘강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보다 가난한 ‘형’이 자신보다 부자인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나타나며, 아버지의 제사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소박한 음식<sup>24)</sup>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운감을 잘 하실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형’에게 제사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은 제사를 통해 어버이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크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혼령에게 전달이 되

24) 쌀겨 죽, 메기 죽, 시래기 죽, 미음 등 일반 민가에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 종류로 나타난다.



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유교식 제사가 복을 받기 위해 제물을 차려 의례를 지내는 것이지만, 6445 설화 속에서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 상황이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는 서사 속에서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를 접한 사람들에게 어렴풋이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이야기에서 강복보다는 어버이에 대한 봉양이 강조 되는 것은 ‘頒飭’이라는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6444 이야기에서는 혼령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평소와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다. 더불어 ‘흡향’의 표현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생전과 같은 ‘食飮’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서술이 되고 있다.

‘흡향’이란 영혼이 제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유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제사를 통해 흡향을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유학자들에게 의문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문구가 『예기』에서 등장한다. 『예기』에서는 “제사의 예법은 주인이 스스로 다하는 것이다. 어찌 ‘신’이 흡향함을 알겠는가?”<sup>25)</sup>라고 표현을 하여 제사를 흡향하러 오는 신에 대한 존재보다 제사를 치루는 주체자의 정성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신이 제물을 흡향하는 것에 대해서 신이 제물을 ‘食飮’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경하는 데에서 맛으로 드리지 않고 기운과 냄새를 귀중하게 여긴다.”<sup>26)</sup>라고 하면서 그저 제물만 차려놓는다고 신이 흡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에 흡향한다.”<sup>27)</sup>라 하여 정성을 통한 신과의 교감을 중시하였다. 이는 『주자가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주지는 흡향하러 오는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가 불멸한 존재는 아니고 『예기』와 마찬가지로 조상을 생각하는 지손들과 감응하여 흠어졌던 혼백이 뭉쳐 제사 때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sup>28)</sup>

하지만 ‘운감’의 행위에는 의례에서 나타나는 ‘정성에 대한 감응’보다, 혼령이 생시와 다름없이 밥을 잡숫고 간다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특히 영혼이 실체를 이루어 제사를 지내는 집까지 걸어가고, 직접 자리에 앉아 ‘食飮’하고 간다고 생각한 것이 특이하다. 이런 행위는 흡사 어버이를 봉양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즉 설화의 세계관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생시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직접 제사상에 와서 밥을 먹고 배를 채우고 간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더욱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 멀어 ‘운감’을 하지 못해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하여, 조상령이 실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생시와 같이 ‘의식주’에 대한 욕망과 충족이 이루어져야함을 암

25) 『예기』, ‘祭統’, “夫祭者, 非物自外至者也, 自中出生於心也. 心忱而奉之以禮.” ; 금장태, 앞에 책, 2008, 82쪽

26) 『예기』, ‘郊特性’, “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 ; 금장태, 앞에 책, 2013, 76쪽

27) 『예기』, ‘太甲下’, “鬼神無常享, 享于克誠” ; 금장태, 앞에 책, 2013, 76쪽

28) 조남욱, 「死者에 대한 유교적 사고방식」, 『석당논총』 3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4, 66쪽,

시한다. 더욱이 영혼들은 단순히 기본적으로 마련이 된 제물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전에 즐겨먹던 음식을 요구하기도 하며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644-4의 각편 중<sup>29)</sup>에는 자손들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만 차려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개고기는 차려두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644-1-230) 각 편 중에서는 개고기로 제사를 지낸 이야기도 있어 제사상을 단순히 '신'에 대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생전과 마찬가지로 밥상을 차려 대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시와 같이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자가례』의 전통이 정착되던 시기의 야담 속 일부 기록에서도 나타난다.<sup>31)</sup>

아들은 다시 나가 뵈었다. 그런데 앞서 두 영감은 오사모를 쓰고 비단 도포에 금띠를 들렀는데 세 번째 도착한 이 영감만은 찢어진 두건에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역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을 전하면서 모시고 들어가려 하자, 이 영감은 불안해하면서 머뭇거렸다.

“기제사는 한 집안의 큰 예인데 내 의관이 이렇게 해지고 더러운지 감히 들어가 참석 하기가 그러네, 내 뜻을 들어가 알려주었으면 좋겠네.”<sup>32)</sup>

위 인용문에서 제사에 온 혼령에게 부족한 것은 '의복'으로 나타난다. 망자는 자신의 옷이 낡아 타인의 제사도 참석을 하지 못하며 부끄러워한다. 이에 자손은 망자가 낡은 옷을 입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슬퍼하며 제사를 지내 옷을 바치는데, 이 또한 제사를 통해 생시와 같이 혼령에게 의식주를 바치고 봉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사가 실제적으로 혼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한다는 의식은, 야담의 작가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한 일화에서도 살필 수 있다.

29) 6-5 제사상에 차릴 음식

30) 5-4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31) 임방 저/김동욱·최상은 역, 『천예록』, 명문당, 2003.

29. 생일날 나타나 요기를 청한 박내현의 선친

30. 제삿날 찾아온 서성과 그 친구들의 혼령

유몽인 저/신익철·이형대·조윤희·노영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126. 용천역의 귀신

132. 민기문에게 나타난 친구의 혼령

133. 반함 구슬을 되돌려준 혼령

각 편의 번호는 해당 서적의 기준에 따름

32) 유몽인 저/신익철·이형대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215쪽.

옛날에 내가 산사에 있을 때 보니 중들이 두어 사발의 밥으로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에게 제향하면서, 징의 손잡이를 거꾸로 하여 허공에 글자를 쓰는 것이었다. 이상해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불법에 범어로 ‘옴’ 자를 밥그릇을 향해 쓰면 한 그릇이 백 그릇이 되고, 백 그릇이 천 그릇이 되며, 천 그릇은 만 그릇이 됩니다.”

아! 북교 제단의 밥그릇에는 누가 징의 손잡이를 거꾸로 하여 글자를 쓸 것인가? 가소로운 일이다.<sup>33)</sup>

유몽인은 북교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며 제사는 허례허식보다 실질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사가 정착되던 시기에도 이미 제사를 통해 혼령의 ‘욕구’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644 이야기에서 ‘운감을 하러 오는 혼령의 존재’는 제사를 지내는 주체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당위성을 주면서 생전과 마찬가지로 더욱 제사를 정성껏 모셔야 된다는 의무감도 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 제사를 정성껏 모신다는 것은 『주자가례』에 입각한 원칙 보다는 제사를 받는 혼령을 기준으로 삼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어』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에 있어 “부모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부모가 와서 계시듯이 해야 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신이 와서 계신 듯이 해야 한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제사를 아니 한 것과 같다.”라는 말로 제사의 공경함을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한다.<sup>34)</sup> 우리나라는 이 극진함에 더불어 마치 부모가 와서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혼령이 오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데에 있어 제사를 받는 혼령은 반드시 존재하며 철저히 망자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자가례』의 원칙보다는 망자의 결핍된 부분<sup>35)</sup>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된 것이다. 또한 이 행위는 일반적인 제사의 ‘발복’ 행위 보다는 부모에 대한 ‘奉養’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선행되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를 대접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온다. 이는 죽은 부모님의 영혼을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의례로 파악된다.

33) 유몽인, 위의 책, 272쪽.

34) 신윤경, 「전통제례 수행의 이원적 양상 연구」, 이화어문논집 30, 2012, 164쪽.

35) 생전에 좋아하는 음식과 같은 부분들

#### IV. 탈 규범화된 제사와 ‘예(禮)’의 완성

망자를 생사와 같이 모셔서 봉양해야한다는 의식은 433-4 설화군의 이야기<sup>36)</sup>에서 파격적인 제사로 표출된다. 433-4 이야기들의 서사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33-4-1

- ㄱ. 어떤 학자가 길을 가다가 제사를 지내는 집에 묵게 되었다.
- 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니 부부가 제사상 앞에 이부자리를 깔고 끌어안았다.
- ㄷ. 이를 이상히 여겨 물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이 결혼할 것을 염려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에 제사마다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 ㄹ. 학자는 이 부부의 행위를 참으로 효성스런 행위라 감탄하였다.

##### 433-4-2

- ㄱ. 황 진사는 본디 노비 출신의 인물이었지만 예학에 밝아 벼슬살이를 했다.
- ㄴ. 황 진사의 제삿날 제자들은 그가 제사를 잘 지낼 것이라 여기고 다 같이 구경을 갔다.
- ㄷ. 제사를 지켜보니 제기나 진설도 없이 바가지에 밥을 수북이 담아 제사를 지냈고 이를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황 진사에게 물어봤다.
- ㄹ. 황 진사는 자신들의 조상이 모두 노비 출신이라 예를 차려서 제사를 지내면 흠향 하시지 않으니 이렇게 지냈다 하고 이를 들은 제자들은 예의를 아는 분이라며 감탄했다.

##### 433-4-3

- ㄱ. 가난한 사람이 남의 산에 나무를 베러 갔다.
- ㄴ. 나무를 베려는 찰나 한 말 탄 사람이 “남의 나무를 베도 되는 것이냐” 묻고 집에 들어갔다.
- ㄷ. 이에 나무 베기를 포기한 사람이 다음 날 그 집에 사정을 설명했다.
- ㄹ. 이를 전해들은 주인은 전날이 제삿날이었고 아버지가 평소에 말을 자주 타고 다니셨다고 하며, 다음 제사부터는 말먹이를 집 밖에 진설하게 되었다.

36) 1-2 정말효자, 2-2 이상한 효행, 3-4 ‘예’를 모르는 조상의 제사, 4-1 말먹이 내놓고 제사 지냄, 4-1 효도 제사, 4-1 이상한 제사 방법, 5-3 영감님의 제물, 8-5 백배치사

\* 8-5 백배 치사의 경우 내용 상 제사가 나오지 않아 단순히 효행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433-44

- ㄱ. 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를 지낼 때면 항상 아버지 산소에 등불을 들고 가서 혼백을 모셔왔다.
- ㄴ.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들의 뭍까지 같이 진설하였다.
- ㄷ.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자 후에 그와 그의 자손은 모두 현달하였다.

각 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내는 데에 있어 흠향을 하러 오는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법’ 이전에 영혼에 맞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편 433-41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다 죽었다는 것에 아들이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서 잠자리를 한다.

433-42는 제기와 진설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노비들이 밥을 먹듯 바가지에 밥을 담아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나 433-43, 433-44의 이야기에서 말의 밥을 챙겨주거나, 제사의 주체가 되는 아버지 이외의 친구들의 영혼의 밥까지 챙겨주는 모습은 앞서 살펴본 644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혼령을 생전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는 의식이 드러나며 이는 『주자가례』의 방법과 다른 일탈적인 모습으로 표상된다.

이야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에 반드시 영혼이 생전과 마찬가지로 묘소에서부터 제사상까지 밥을 먹으러 온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치르고 있다. 644이야기와 433-4 이야기에는 ‘운감’을 통해 직접 ‘食飮’을 하는 혼령들이 나타나 그들이 실체를 가지고 제사상에 임한다는 인식을 심어지고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혼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각 편<sup>37)</sup>에서 아들이 직접 부모님의 묘소까지 등불을 들고 찾아가 길을 밝히며 영혼을 모셔왔다는 이야기를 통해 제사상에 오는 혼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식 제사에서는 ‘신’이 흠향을 하면 제물에 복을 깃들게 하여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하지만 433-4 이야기에서는 각편 433-44를 제외하고 ‘감응’에 대한 과정보다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는 과정이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신과 감응 하여 복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데<sup>38)</sup>, 433-4 이야기에서는 강복(降福)을 포기한 무조건적인 공양을 하고 있어 이 또한 유교식 제사에 대한 일탈적인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신에게 바치는 ‘祭物’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자가례』에서는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음식들이므로 금기를 지켜야 하며 매우 정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37) 4-1 효도 제사.

38) 금장태, 앞면 책, 2013, 83쪽.

433-4-2에서는 다른 반찬이 없이 밥만 제사음식으로 ‘공양’ 하고 있다. 또한 433-4-3, 433-4-4에서는 주체가 되는 영혼 외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말 먹이를 같이 챙겨주고 433-4-4에서는 제사 상 이외에 손님으로 온 영혼에 대한 별도로 상을 차려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사에 찾아오는 혼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다가 혼령이 가진 결핍을 채워주는 ‘제물’은 물질적인 음식 외에 부부관계의 증명과 같이 생전에 망자에게 결핍되었던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의식이 담긴 것이다.

이러한 위 설화군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모두 예에서 일탈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은 모두 참다운 효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예’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예’를 지켰다는 모순은 한국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설화에서 제사에 흠향하러 오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들을 대하는 것은 생전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제사 관련 설화에서 유교식 제사의 목표인 ‘降福’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전후관계가 뒤바뀌어 나타나는 것은 제사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듯이 당연하게 해야 할 행위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제사는 ‘食飮’을 하러 오는 부모님의 혼령을 위해 당연하게 밥상을 차려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며 제사의례는 『주자가례』나 『사례편람』에 의해 정의된 규범들보다 망자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규범을 깰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433-4 이야기에서 제사의 ‘예’를 지키지 않았지만 부모에 대한 ‘예’를 지킨 것이며 서사 속에서 ‘효’로 표상이 된다.

이와 같은 혼령에 맞춰 ‘결핍’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식은 제사상에 고인이 생전에 즐겨먹던 음식을 올리는 행위에서도 살필 수 있다. 과거 고양 벽제의 양반 ‘이규령’의 제사를 지내면서 유가와 꿀물을 같이 올려 고인이 생전에 즐긴 화채를 먹을 수 있도록 진설을 하거나, 전복으로 젓갈을 만들어 올리는 등 고인이 생전에 먹던 음식을 똑같이 올려 대접하는 것<sup>39)</sup>에서 제사상에서 ‘흠향’이 고인의 결핍을 해소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동 일부지역에서는 어르신이 생전에 드시던 묵이나, 과자를 같이 올리고 있다는 점<sup>40)</sup>에서 고인이 원하는 것을 대접해야 ‘효’가 완성된다는 의식은 현대인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사는 혼령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제사는 주로 생전과 같은 상차림으로 혼령의 ‘굶주림’을 해소시켜주며, 때에 따라 혼령이 원하는 것을 제물로 올려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제사규범 자체를 일탈하여 제사를 지내는 서사로 나타났고, 혼령의 ‘결핍’을 해소시켜 줬기 때문에 올바른

39) 이원태, 「조선시대 제례 진설 규범과 실제사례」,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3, 32쪽.

40) 배영동, 「안동지역 일상음식과 제사음식의 비교」, 『민속연구』 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97-98쪽.

이야기로 인식되는 것이다.

## V. 결 론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는 신과의 교감을 통해 제물을 흠향한 신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의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지내는 제사는 ‘음복’의 행위보다는 그 음식을 조상님에게 바치는 공양이 강조가 되어있다. 또한 유식의 과정에서는 유교식으로 특수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조상의 혼령을 생사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여 일상적인 부분을 보여주며, ‘발복’보다 밥을 대접하여 모시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제물의 변경, 제사시간의 변경)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433번의 이야기가 효도의 이야기로 포함이 되는 까닭은 일상적 삶의 연장선상으로 죽은 부모의 밥상을 차려 이를 드시게 한다는 것에 있으며 ‘강복’에 연연하지 않고 조상이기에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예의에 맞는 것이며 효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학술 DB

고전번역원 DB

한국구비문학대계 DB

장서각 아카이브

○ 단행본

금장태. 2008. **귀신과 제사**. 제이앤씨.

○ 논문

김미영. 2008.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 35.

김상란. 2005. “한국의 제사·혼령 설화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김상보. 1996. “한국의 제사음식 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 배영동. 1999. “안동지역 일상음식과 제사음식의 비교” , **민속연구**, 9.
- 신윤경. 2012. “전통제례 수행의 이원적 양상 연구” , **이화어문논집**, 30.
- 윤덕인. 1994. “祭祀飲食과 상차림에 관한 연구” , 관동대 산업기술개발연구소 **산업기술논문집**, 22.
- 이난수. 2014. “장계향(張桂香)의 음식디미방과 유교여성 살림의 철학” , **한국의 철학**, 54.
- 이원태. 2013. “조선시대 제례 진설 규범과 실제사례” ,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이인경. 2005. “ ‘제사 관련 설화’ 의 전승양상과 의미” , 한국구비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 이지영. 2011. “우연히 엮들은 신령들의 제물 품평 설화군의 전승 양상과 그 의미” , **동아시아 고대학**, 26.
- 임재해. 1999.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 **민속연구**, 9.
- 조남욱. 2004. “死者에 대한 유교적 사고방식” , **석당논총**, 34.



[토론문]

## 「설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토론

유요문

(상지대학교 강사)

정장순 선생님의 발표문은 설화 속 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이것이 규범적 유교 텍스트들(『예기』나 『주자가례』)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시각은 현대에서 제사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될 수 있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설화에 대한 공부에 많이 미흡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저의 토론문은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토론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전제에 대한 의문

선생님은 전통적이며 규범적인 유교 텍스트인 『예기』와 『주자가례』에서 보이고 있는 핵심적인 목적이 귀신의 귀신(조상)에 대한 ‘정성(精誠)’ 과 그에 따른 ‘감응(感應)’ - ‘강복(降福)’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시(7쪽)하고 있는 『예기』의 근거만을 가지고 이것을 재단하여 이해하기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텍스트들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제사 주체자의 정성된 마음이 설화로 더 잘 파생-심화되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텍스트인 『논어』(9쪽)에서도 귀신은 실재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주체자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요컨대, 우리 설화에서 부모가 죽었음에도 제사에서 살아계실 때처럼 ‘봉양’ 하는 것 역시 규범적 텍스트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탈 규범화된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들이

전혀 다르다라는 논지로 향하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더 속(俗)화된 것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2. ‘예(禮)’의 완성과 이데올로기 재생산

선생님께서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제사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규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예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예(禮)나 효(孝)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물론 전통적, 규범적 텍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탈’ 임은 인정한다 하여도, 과연 이것이 “망자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규범을 깰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이야기들은 오히려 전통적 유교 이데올로기를 더 쉽고 충격적이게끔 만들어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sup>41)</sup> 이것은 규범을 깰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유교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심어 넣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규범적인 것을 깰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규범적이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사상 앞에서 잡자리를 가지는 행위는 충격적이며, 규범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현실의 규범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야말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망자를 ‘상상’ 함으로써 현실의 이데올로기 질서를 더 잘 수호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설화를 과연 탈 규범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규범적인 것을 재생산하고 있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지는 다소 논쟁이 있을 부분으로 보입니다.

## 3. 용어와 문장의 혼재 및 오류

아마 급하게 쓰셔서 그런 것이겠지만 발표문 내의 용어와 개념들이 조금은 혼잡해 보입니다. 강복(降福)과 발복(發福)의 혼재라든지, 정성(精誠)과 감응(感應)의 혼재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 극진함에 더불어 (마치 부모가 와서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혼령이 오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9쪽)라는 문장을 보면 주어가 우리나라로 설

41)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2007.

정되어 있어서 중국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려면 오히려 중국의 설화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앞서 『논어』를 인용하셨는데, 마치 이것이 중국 것이라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4. 전통적·규범적 텍스트 속 제사 관련 문장들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살아 계실 때는 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禮로써 장사 지내고, 禮로써 제사지내는 것이다.”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논어』 <위정 5>
- 2) “제사할 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義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논어』 <위정 24>
- 3) “禘祭에 鬱鬯酒를 땅에 부어 降神한 뒤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았다.” [禘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논어』 <팔승 10>
- 4) 공자께서는 선조(先祖)에게 제사를 지내실 때에는 조상이 계신 듯이 하셨으며, 선조 이외의 신(神)을 제사지낼 때에는 신(神)이 계신 듯이 하셨다. 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祭如在, 祭神如神在.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논어』 <팔승 12>
- 5) 子貢이 告朔에 희생으로 바치는 羊을 없애려 하자, 자께서 말씀하셨다. “賜야! 너는 그 羊을 아끼느냐? 너는 그 禮를 아긴다.”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논어』 <팔승 17>
- 6) “우(禹)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 평소의 음식(飲食)은 간략하게 하시면서도 제사(祭祀)에는 효성(孝誠)을 다하시고, 평소의 의복(衣服)은 검소하게 하시면서도 제복(祭服)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시고, 궁실(宮室)은 낮게 하시면서도 치수(治水) 사업에는 힘을 다하셨으니, 우(禹)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 [禹吾無間然矣, 非飲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吾無間然矣.] 『논어』 <태백 21>
- 7) 연우가 추(鄒) 땅에 가서 맹자에게 묻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지 않습니까? 부모상은 진실로 스스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섬기기를 예(禮)로써 하며,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하기를 예로써 하고 제사하기를 예로써

하면 효(孝)라고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然友之鄒, 問於孟子,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 固所自盡也, 曾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 『맹자』 <등문공상 2>

학술대회 첫째날

2018.04.27

---

자유발표

[자유발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재생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 충북 남부3군의 행복생활권사업을 중심으로

- 김희경(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이연수(극동대학교)
- 박보영(극동대학교)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재생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충북 남부 3군의 행복생활권사업을 중심으로

2018.04.27.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 국어문화원 2018 공동학술대회

김희경(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연수(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보영(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발표문은 <충북 남부 3군 행복생활권사업 프럼>(2017.12.21)에 기초한 것입니다.

### 목차

1. 행복생활권사업의 배경
2. 행복생활권사업의 개요
3. 행복생활권사업의 주요 내용
4. 행복생활권사업의 효과 : 행복공감학교를 중심으로
5. 행복생활권사업의 함의

\* 김희경(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연수(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보영(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 박보영 socpol@naver.com

### □ 행복생활권사업의 배경



## 2.1 사업목표

“ 지역의 교육, 문화예술, 공동체성 개선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행복생활권 진입 ”

교육소의 해소	지역 문화기반 향상	지역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 해소 필요</li> <li>·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자립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문화인프라 조성 필요</li> <li>· 주민과 공동체 중심 문화활동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인재육성 필요</li> <li>· 공교육 지원과 평생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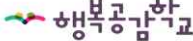
행복생활권 조성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개발



## 2.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2015. 12. 14 ~ 2017. 12. 31 (25개월)
- 사업예산: 24억 5천만원
  - 국비 19억 6천만원
  - 지방비 4억 9천만원
- 사업대상: 충북 남부3군(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초·중·고생

## 2.3 사업내용(1): 행복공감학교

 **행복공감학교** '균형 있는 인성발달', '공동체 의식' 특화교육 프로그램  
남부 3군의 합창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



**전문강사단 양성 교육**  
: 총 6회 실시  
실인원 15명 / 연인원 82명



**인성/안전/진로 교육**  
: 총 24개 학교  
실인원 2,244명 / 연인원 6,012명




**공감/체험/봉사 동아리**  
: 총 63개 동아리  
실인원 531명 / 연인원 3,755명




**합창단 지원**  
: 총 8개 학교  
실인원 325명 / 연인원 9,800명

## 2.3 사업내용(2): 행복사회로

 **행복사회로** 고3 예비 사회인 맞춤형 비전 찾기 및 미래설계

 <b>전문강사단 양성 교육</b> : 총 7회 실시 실인원 23명 / 연인원 161명	 <b>행복사회로 교육</b> : 총 26개 학교 실인원 3,566명 / 연인원 7,132명
 <b>지역문제해결형 동아리</b> : 총 9개 동아리 실인원 41명 / 연인원 205명	 <b>EBS 입시설명회</b> : 총 2개 학교 실인원 400명 / 연인원 400명

## 2.3 사업내용(3): 해피투게더 투어

 **해피투게더투어** 다문화-일반가족 통합형 문화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실시

 <b>마을투어</b> : 총 17회 실시 실인원 258가정 / 연인원 1,058가정	 <b>집단프로그램</b> : 총 47회 실시 실인원 180가정 / 연인원 799가정
 <b>사례관리</b> : 총 3회 솔루션회의 실인원 180가정 / 연인원 180가정	 <b>학부모동아리</b> : 총 19회 실시 실인원 180가정 / 연인원 422가정

### 3.1 지역기반 공동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방소도시의 상당수가 자유학기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 학생이 주도하는 직업/진로, 인성, 안전 PBL 프로그램의 메뉴얼화
-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에서 수행 가능한 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 도입
-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창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 구축



### 3.2 교육의 보편성과 편리성 추구

- 스마트 리스닝 시스템 도입을 위해 EBS의 콘텐츠 저작권을 확보하여 남부3군 모든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보편성 추구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EBS영어듣기 스마트 리스닝 시스템 남부3군 모든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편리성 추구



### 3.3 지역내 자원발굴 및 개발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

- 학교, 마을 단위 체험처,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교육 커뮤니티 구축
- 지역 내 강사 양성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구분	내용
교육기관 및 체험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체험처와 함께 마을 투어 프로그램 진행</li> <li>•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및 프로그램 연계 진행</li> </ul>
전문강사단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3군 지역 교육 전문가 양성</li> <li>•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지원</li> </ul>

≡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구현

### 3.4 지역중심의 통합형 교육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 워크숍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연계 사업 및 자문위원단 회의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의견 및 정보 공유
- 정기적 회의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 지원체계 구축



### 3.5 교육프로그램의 모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의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모델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담보.



####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

일자	내용
2017.04.2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인증 신청서 제출
2017.06.22	ESD 변경 계획서 제출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 → 영동, 옥천, 보은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
2017.08.04	ESD 공식프로젝트 조건부 인증 프로젝트 자문회의 참여
2017.08.25	ESD 한마당 - 인증서 수여식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선정됨으로써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의 모델을 국내 및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4.1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효과성 분석 :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7년 5월~12월
조사대상	행복공감학교 참여학생 및 학교
조사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다중응답분석, 기술통계분석 등 사용 (SPSS 버전.18)

## 4.2 공동체의식 특화 교육 프로그램 : 분석결과(1)

### ○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2 공동체의식 특화 교육 프로그램 : 분석결과(2)

### ○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N=127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2.00	5.00	4.38	0.75
교육방법과 교재 등이 적절하게 구성	2.00	5.00	4.38	0.75
계획된 학습목표가 성취	1.00	5.00	4.33	0.78
교육내용에 대한 나의 이해수준은 적절	1.00	5.00	4.39	0.75
과정 전체에 소요된 시간 운영은 적절	1.00	5.00	4.36	0.80
흥미롭고 유익했으며 전문성 향상 및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1.00	5.00	4.35	0.80
<b>* 교육과정에 대한 총 만족도</b>	<b>2.00</b>	<b>5.00</b>	<b>4.37</b>	<b>0.7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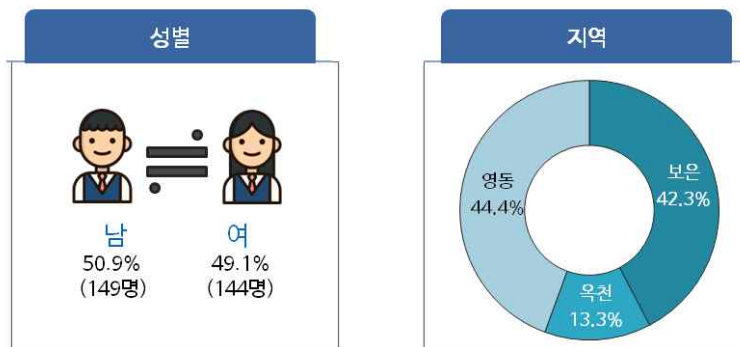
## 4.2 공동체의식 특화 교육 프로그램 : 분석결과(3)

### ○ 강의 만족도

(N=127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 진행 방법이 참여 및 토론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참신	2.00	5.00	4.35	0.78
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느껴졌음	2.00	5.00	4.39	0.75
강사가 지도자다운 말과 행동으로 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진행	1.00	5.00	4.44	0.73
<b>*강의에 대한 총 만족도</b>	<b>2.00</b>	<b>5.00</b>	<b>4.39</b>	<b>0.7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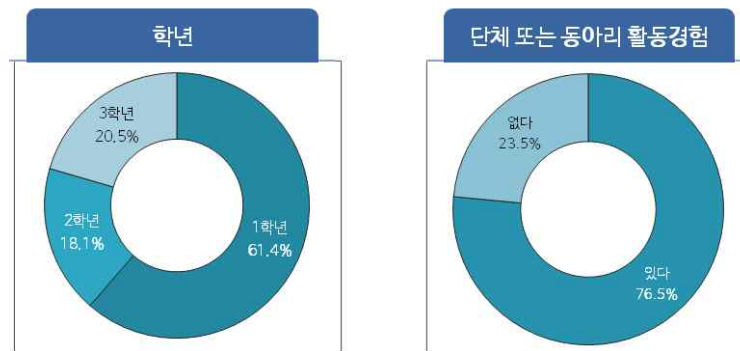
## 4.3 학생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프로그램 : 분석결과(1)

### ○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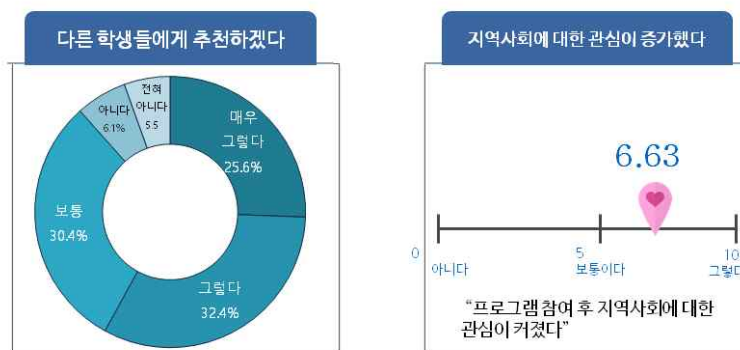
### 4.3 학생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프로그램 : 분석결과(2)

#### ○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 4.3 학생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프로그램 : 분석결과(3)

#### ○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행복생활권사업의 효과: 행복공감학교를 중심으로

21 / 24

### 4.3 학생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프로그램 : 분석결과(4)

#### ○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의 변화(1)



인식변화  
3.96 / 5



행동변화  
3.88 / 5



관계향상  
3.96 / 5



진로목표설정  
3.88 / 5



문제해결능력  
3.83 / 5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식변화	1.00	5.00	3.96	0.74
행동변화	1.20	5.00	3.88	0.77
관계향상	2.31	5.00	3.96	0.74
진로목표설정	2.00	5.00	3.88	0.72
문제해결능력	2.25	5.00	3.83	0.76

4. 행복생활권사업의 효과: 행복공감학교를 중심으로

22 / 24

### 4.3 학생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프로그램 : 분석결과(5)

#### ○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의 변화(2)



자기결정인식능력  
3.32 / 5



타인이해력향상  
3.48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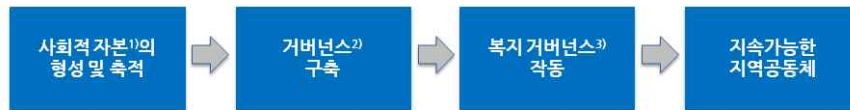
부정적자아인식해소  
3.06 / 5



자기결정성향상  
3.24 / 5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기결정인식능력	1.00	5.00	3.32	0.89
타인이해력향상	1.00	5.00	3.48	0.75
부정적자아인식해소	1.00	5.00	3.06	1.02
자기결정성향상	1.00	5.00	3.24	0.80

## □ 행복생활권사업의 함의



- \*주: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구성원 간의 협동과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 2) 거버넌스(governance): 이른바 '민·관 협력', 공동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양식.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적 네트워크(協治)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함.
- 3) 복지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지역복지(행정)에 구현한 것.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영역에서 민간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사 혼합 복지 체계'를 말함. 요컨대, '민·관 협력에 기초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 \*참고) 박보영(2012), "새로운 거버넌스", 덕성여대신문, 597호.
- 곽명준·박보영(2011),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대화", 노동연구, 22집.
- 박보영(2011),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증진방안에 관한 소고",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권 1호.

# 감사합니다

[토론문]

## 「충북 남부3군의 행복생활권사업」에 대한 토론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저출산·고령사회가 한국에서 ‘화두(話頭)’가 된 지 어언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현재 전체인구 중 14%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조선족을 위시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다문화인들이 적극 유입되어 현재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생산력 감소와 직결되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기존 순혈주의를 근간으로 한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연구들이나 관련 칼럼, 신문기사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발제에서도 설명했듯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 남부 3군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서 수행된 〈행복생활권사업〉은 상당한 의미를 제기 한다. 지면관계상 두 차원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사업을 수행한 3군은 저출산·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90년대 일본에서 일궈어지는 ‘지방 소멸’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다. 지역 소멸의 수순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기존 관공서 및 편의시설들이 사라지면서 마을은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로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포용·공생이 시대의 가치로 자리 잡았다.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질적 인종들이 한 데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와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다문화인들을 포용하고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청소년들도 지역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관점에서 충북 남부3권의 행복생활권사업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다.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발제에 대해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려 한다.

첫째, 양적연구를 기반으로 행복공감학교에서 수행한 효과성 결과를 발제 PPT의 p.29에 보여주셨다. 변수평균이 최하 5점 만점에서 최하 3.06을 넘길 만큼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제시해주셨지만, 인식변화와 관계향상은 3.96으로 가장 높고 부정적 자아인식 해소는 3.06으로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듣고 싶다.

둘째, 행복생활권사업의 네이밍(naming)에서도 활용된 '행복'이란 단어는 삶의 질이나 관계성 같이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보다 질적인 연구가 적합하지 않을까 본다. 아니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혼합방법을 사용하면 더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했을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다문화라는 시대적 맥락과 관련되어 일종의 대안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업의 취지나 성질상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학계, 지역 커뮤니티 등이 연동되어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 싶다.

학술대회 둘째날

2018.04.28

---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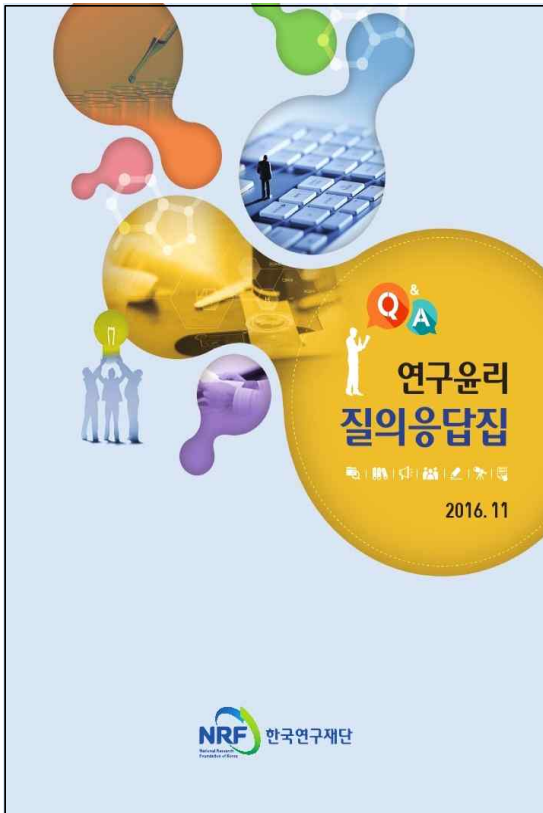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1)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 작성의 가능성? ..... 2
-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 3
-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 4

**CHAPTER 2**  
연구수행

-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 5
-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 7
-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 8
-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 9
-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 10
-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 11
-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3
-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네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14
-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립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 15
-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행한 인간배를 지도교수가 반향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6
-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남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 17

- i -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2)

**CHAPTER 3**

**연구발표**

-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6
-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8
-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9
-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위논문이 심사과정 중인 사심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1
-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적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2
-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3
- 36 A와 B가 같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가 B에서 A가 B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위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가 B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44
-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립대학과 의대학이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편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5
-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가? 46
-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되는가? 48
- 40 A 기간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B 기간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
-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 50
-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1
-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52
-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 iii -

**CHAPTER 4**

**저자표시**

-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58
- 46 포스트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59
-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60
-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61
-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제출관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작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62
-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64
-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작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65
-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66
-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68
-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70
-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72
-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74
-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75
-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77

- iv -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CHAPTER 5**

**중복게재**

- 60 연구책임자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 기조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80
- 61 승진된 학위논문 출판을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81
-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된 연구 내용을 장구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82
-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84
-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 86
-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87
-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89
-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90
-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 표절인가? — 91
-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용 문제가 소지가 있는가? — 92
-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 94
-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구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95
-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로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뜨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 96
-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7
-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98
-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 99

- v -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 98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 124
- 99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125
- 100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28
- 101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129
- 102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처 및 인턴십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처에 반드시 응답 의무가 있는가? — 130
- 103 지도교수의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 131
- 104 대학 연구고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 133
- 105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 134
- 106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료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135
- 107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36
- 108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은 어떤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37
- 109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을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 138
- 110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 140
- 111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41
- 112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 143
- 113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 144
- 114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발탁이 의무인가? — 145
- 115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46

- vii -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4)



**I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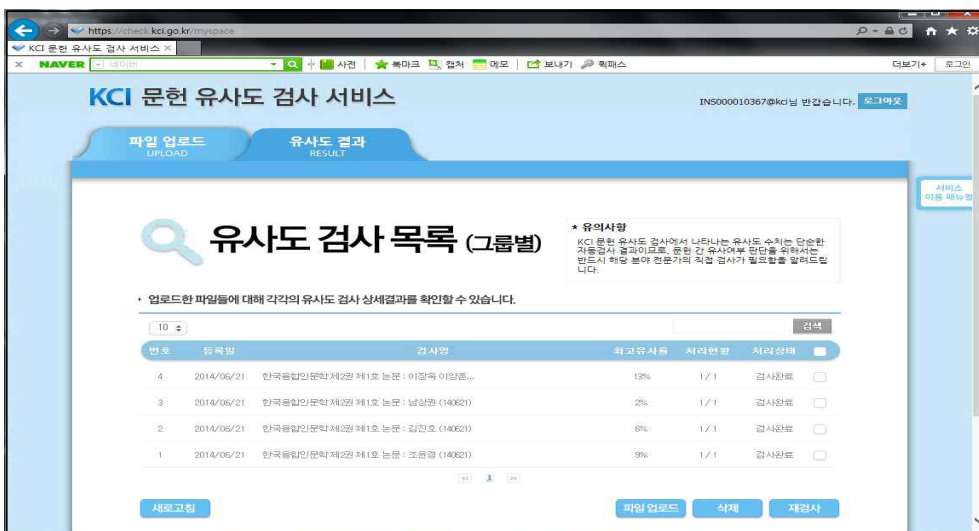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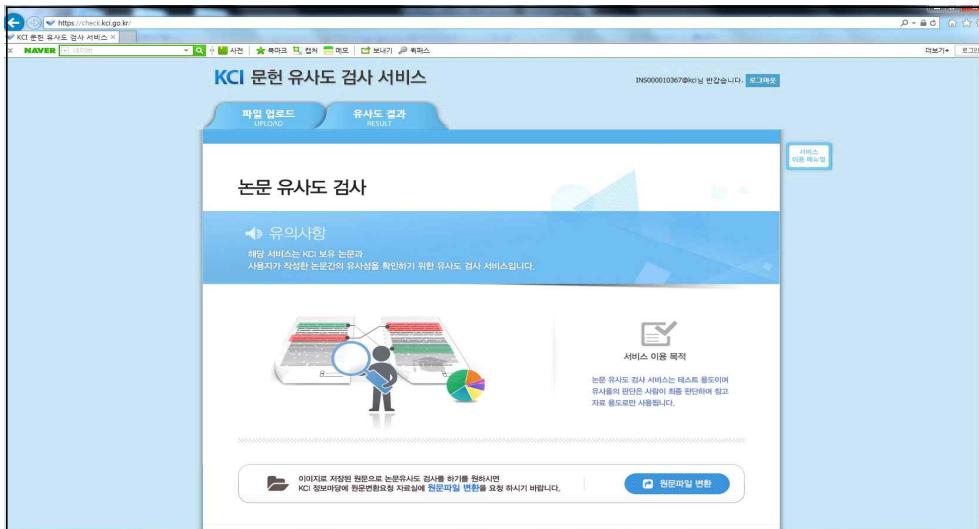
122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불사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이해유려를 분석하는 자기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68
128	대학 병원의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생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176
134	자신의 고리극을 수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77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

- ix -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융합인문학회-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8 춘계 공동학술대회(2018.04.27~04.28)  
우리 말, 우리 문학의 구조와 특색을 탐색하다

학술대회 둘째날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